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❼ 승조(僧肇)



▶ 한줄 요약
구마라집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은 바로 승조로, 중국반야학과 전체적인 중국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격의’ 벗어나게 한 중국 반야학 비조

〈鼻祖〉



승조는 당시에 번역된 〈유마경〉을 보고는 “비로소 귀의할 바를 알았다”며 출가했다. 사진은 7세기 일본의 쇼토쿠 다이시가 〈유마경(維摩經)〉에 주석을 단 것을 근대에 간행한 〈유마경의소〉. 출처=국립중앙박물관

구마라집(鳩摩羅什)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불교는 사상적으로 크게 일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구마라집의 역경(譯經)과 강설(講說)이 뛰어난 덕분이지만, 그의 문하에 승조와 도생(道生) 같은 뛰어난 제자들의 작용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중국불교의 사상사(思想史)에서 불교의 흐름을 바꾼 불세출의 존숙(尊宿)들 가운데 그에 호응하는 제자들을 못 만나서 그 명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구마라집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은 바로 승조(374, 378, 혹은 384~414)이다. 승조의 생몰연대는 그와 관련된 자료에 나타난 모호한 표현으로 인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출현하였다. 그렇지만 승조가 의희(義熙) 10년(414) 장안(長安)에서 입적한 것은 대부분의 자료에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출생연대를 최대한으로 하여도 41세이며, 〈고승전〉에서는 31세에 입적하였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승조의 짧은 생애에 대하여 후대에 너무 뛰어나 대중들로부터 시기를 받아 요흥(姚興)에게 무고하여 사형을 당했다는 전설이 출현하였고, 특히 〈경덕전등록〉 권27에는 사형에 임하여 승조가 작성했다는 게송까지 실려 있다. 그러나 당시의 여러 자료를 통한 정황상 승조가 사형 당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후대에 승조의 이름을 가탁한 위서(僞書)들이 출현하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설이라고 평가된다.

〈고승전〉에 실린 그의 전기에 따르면, 승조의 집안은 가난하여 책을 베껴주는 일을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등을 모두 열람할 수 있었으며, 특히 〈노자〉와 〈장자〉를 심요(心要)로 삼았다고 한다. 이는 당시의 시대사조가 현학(玄學)이었던 까닭도 있었다고 하겠다. 특히 현학에서는 〈노자〉, 〈장자〉, 〈주역〉을 ‘삼현(三玄)’으로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조는 당시에 번역된 〈유마경〉을 보고는 “비로소 귀의할 바를 알았다”며 출가하였다. 출가한 이후, 대승경전을 비롯한 삼장(三藏)에 대한 이해가 깊어 널리 이름을 알렸으며, 특히 담론(談論)에 뛰어났다고 한다.

당시 구마라집이 여광(呂光)에 의하여 고장(姑藏)에 억류되어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그 명성은 장안에까지 알려졌다. 그에 따라 승조는 고장으로 찾아가 구마라집으로부터 법을 사사받았으며, 홍시(弘始) 3년(401) 요흥이 군대를 파견하여 구마라집을 장안으로 모셔올 때 함께 들어왔다. 그러자 요흥은 승조에게 명하여 승예(僧叡) 등과 함께 소요원(逍遙園)에 들게 하여 구마라집의 역경(譯經)에 참여하여 하였다. 〈대품반야경〉을 번역한 이후에 〈반야무지론(般若無知論)〉을 찬술하자 구마라집으로부터 찬탄을 받았으며, 이 책은 여산(廬山) 혜원(慧遠)의 문하에도 전해져 혜원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또한 여산에 은거하고 있던 유유민(劉遺民)도 감탄하여 편지를 보냈고, 그에 대한 답장을 쓴 〈답유유민서(答劉遺民書)〉가 〈조론(肇論)〉에 실려 있다.

이후 구마라집이 홍시 15년(413)에 입적하자 조서(弔書)인 〈구마라집뢰(鳩摩羅什誄)〉(〈廣弘明集〉卷23 所收)를 찬술하고, 이후 〈열반무명론(涅槃無名論)〉 등을 찬술하였으며, 다음 해인 홍시 16년, 동진(東晋)의 연호로는 의희 10년(414)에 입적하였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승조는 평소에 병약했던 것으로 기록되는데, 따라서 스승인 구마라집이 입적하자 그 영향으로 병사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승조는 31세(혹은 35, 41세)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가 남긴 저술들은 중국불교의 사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승조의 저술은 구마라집이 번역을 완성한 후에 ‘서’를 찬술한 〈백론서(百論序)〉, 〈유마힐경서(維摩詰經序)〉, 〈사분율서(四分律序)〉 등이 있고, 〈유마경〉에 대하여 자신의 주석과 구마라집, 도생의 주석을 합한 〈주유마힐경(注維摩詰經)〉이 존재한다. 그리고 〈반야무지론〉, 〈부진공론(不眞空論)〉, 〈물불천론(物不遷論)〉, 〈답유유민서〉, 〈열반무명론〉 등이 있는데, 후대에 어떤 이가 〈종본의(宗本義)〉를 찬술하여 이를 모아 〈조론(肇論)〉으로 출판하였다. 이외에 자신의 입적 직전에 요흥에게 올린 〈상진왕표(上秦王表)〉가 전한다.

이로부터 보자면, 승조의 저술들은 그리 많지 않으며, 중요한 저술은 바로 〈주유마힐경〉과 〈조론〉에 실린 작품들이라고 하겠다. 그 가운데 〈조론〉에 실린 작품들은 모두 짧은 글들이지만, 도리어 중국반야학과 전체적인 중국사상에 미친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고, 후대에 성립한 조사선(祖師禪)에서 상용되는 개념들을 대량으로 논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중국의 학계에서는 승조의 반야학을 “서역의 중관학과 중국 노장사상의 결합”이라고 평가한다. 그것은 길지 않은 〈조론〉에는 〈노자〉 혹은 〈장자〉의 구절을 모두 97차례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는 여전히 현학이 시대사조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에 찬술된 다른 저술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표현방법이다. 또한 승조의 〈조론〉 이외의 저술에는 이러한 표현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조론〉에 나타난 표현방법은 바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목적은 당연히 당시 주류였던 현학을 겨냥한 것이고, 또한 그 현학을 원용하고 있던 ‘격의불교(格義佛教)’를 논파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겠다.

> 도생과 함께 구마라집 대표하는 제자
> 〈유마경〉을 보고 귀의처 찾고 출가해
> 31세 짧은생애를 살았지만 남긴 저술
> 중국불교 사상에 절대적인 영향 끼쳐

특히 〈부진공론〉에서는 당시 격의불교의 대표적인 본무종(本無宗), 즉색종(卽色宗), 심무종(心無宗)의 세 가지 부류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를 모두 논하기에는 짧은 지면에 가능하지 않지만, 가장 대표적인 본무종에 대한 비판을 예를 들어 최대한 간결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사실상 현학은 반야의 ‘유무(有無)’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단정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유’와 ‘무’에 대하여 치밀한 논증의 과정을 거친다. 특히 현학을 창도한 왕필(王弼)은 ‘무’를 중심으로 한 ‘체용(體用)’으로 전개하여 ‘귀무론(貴無論)’ 혹은 ‘본무론(本無論)’이라고 칭하는데, 도안(道安)을 대표로 하는 ‘본무종’에서는 역시 왕필의 논리를 원용하고 있음을 여실하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부진공론〉에서는 “깊게 무(無)를 숭상하여, 말끝마다 ‘무’를 귀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비유(非有)는 유(有)가 바로 무(無)요, 비무(非無)는 ‘무’가 바로 ‘무’라고 한다. 이러한 문(文)의 본지(本旨)를 세운 것을 살펴보면, 바로 ‘비유’로써 비진유(非眞有)로 삼고, ‘비무’로써 비진무(非眞無)로 삼은 것일 뿐이다. 어찌 ‘비유’에 있어서 ‘유’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비무’에 있어서 ‘무’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이는 바로 ‘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논함이지, 어찌 사실에 따르고 통한 즉물(卽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한다. 상당히 어려운 논리이지만 간략하게 말하자면, ‘비유’의 의미는 비록 ‘유’를 부정하여도 ‘진유(眞有)’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요, ‘비무’의 의미는 비록 ‘무’를 부정하여도 ‘진무(眞無)’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승조가 논증하는 ‘반야’의 묘미를 찾을 수 있는데, 본무종은 ‘무’에 치우쳐 ‘유무쌍견(有無雙遣)’을 거쳐 ‘진속원융(眞俗圓融)’에 이르지 못함을 비판하고 있다. ‘즉색종’과 ‘심무종’에 대한 비판도 이러한 논리를 따르고 있다.

반야사상의 입장에서 보자면, ‘생사’와 ‘열반’의 세계는 다만 상대적인 개념이며, 만약 열반의 세계를 절대화한다고 한다면 생사의 세계 역시 절대화해야 하는 논리적 곤궁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 양변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호상관대(互相觀待)’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른바 반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사의 세계가 ‘상(相)’이라면 그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열반 역시도 ‘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생사’와 ‘열반’, ‘번뇌’와 ‘보리’, 그리고 ‘중생’과 ‘불(佛)’은 모두 ‘즉(卽)’의 관계라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상’을 떠난 궁극적 경지를 결코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열반’에 대한 관념을 수정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열반’의 관념을 그대로 두고 그 내용을 ‘반야’의 입장에서 지양(止揚)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른바 대승의 ‘열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승조는 〈열반무명론〉을 찬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승조는 〈열반무명론〉에서 “열반은 비유(非有)이고, 또한 비무(非無)로서,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의 갈 곳이 사라졌다.[言語道斷, 心行處滅.]”고 한다. 이는 상당히 유명한 구절이며, 특히 “언어도단, 심행처멸”은 후대에 조사선에서 상용하는 문구이다. 여기에서 열반을 바로 ‘비유비무’의 입장에서 논증하고 있음이 여실하게 엿보인다.

사실상 승조의 가장 뛰어난 업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비유비무’를 철저하게 논증했다는 점이다. 현학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곽상(郭象)은 즉유즉무(卽有卽無)를 통한 독화론(獨化論)으로 ‘내성외왕(內聖外王)’의 논리를 완성하는데, 승조는 ‘비유비무’의 논증을 통하여 그를 철저히 비판하여 논파하였고, 또한 ‘비유비무’의 입장에서 대승의 ‘열반’을 논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실제적으로 승조 이후에는 더 이상 현학이 시대사조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으며, ‘격의불교’ 또한 점차 사라져버렸다. 그에 따라 승조를 ‘현학의 종결자’, ‘격의’를 벗어나게 한 ‘중국반야학의 비조(鼻祖)’라고도 칭한다. 또한 〈조론〉에는 ‘촉사이진(觸事而眞)’, ‘물아동근(物我同根)’, ‘물아일체(物我一體)’, ‘체용불이(體用不二)’, ‘입처즉진(入處卽眞)’, ‘용적체일(用寂體一)’ 등의 용어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이후의 불교에서 중요한 논제가 되었으며, 거의 5백년 뒤에 출현한 중국불교의 귀숙(歸宿)인 조사선에서 즐겨 쓰는 용어들이 되었고, 나아가 유교와 도교에도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이로부터 승조의 시대를 뛰어넘는 탁견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하겠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